

건강정보

- 건강문제
- 치료방법
- 검사방법
- 생활습관 관리

심뇌혈관질환정보

약품/식품정보

장애/재활정보

희귀질환정보

암정보

응급상황정보

해외감염병정보

정신건강정보

얼굴마비(중추성 마비)

개요

등록일자 : 2020-04-29 업데이트 : 2023-10-13 조회 : 8395 정보신청 : 93

개요

얼굴마비는 중추성 얼굴마비와 말초성 얼굴마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얼굴을 움직이는 신경이 뇌 속을 지나가는 경로에 이상이 발생해 얼굴마비가 오는 것을 중추성 얼굴마비라고 합니다.

개요-원인

중추성 얼굴마비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 뇌졸중(뇌경색, 뇌출혈 등)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. 뇌졸중 외에도 뇌종양, 다발성경화증 등 다양한 뇌질환에서도 중추성 얼굴마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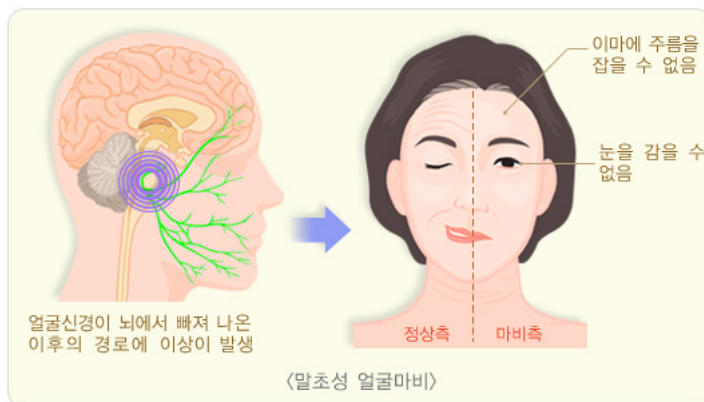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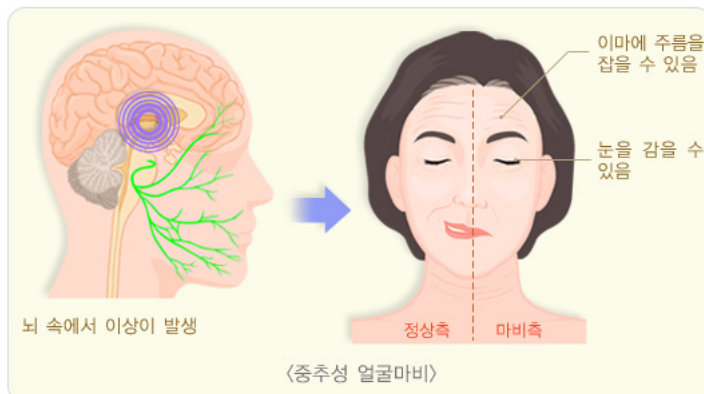
개요-경과 및 예후

중추성 얼굴마비의 경과 및 예후는 원인 질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따라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증상

중추성 얼굴마비에서는 입이 한 쪽으로 돌아가고 입 주변 근육이 약해집니다. 입 주변의 마비가 생기면 물을 마실 때 물이 새거나 식사를 할 때 음식을 흘리게 됩니다. 또한 볼에 바람을 넣으려고 하면 마비가 생긴 얼굴 쪽으로 바람이 쐉니다. 입 주변의 마비가 심해도 눈 주변의 마비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입이 돌아가더라도 눈을 꼭 감거나 이마에 주름을 잡는 것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반면 말초성 얼굴마비에서는 눈감거나 이마에 주름잡기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〈그림. 중추성 얼굴신경 마비와 말초성 얼굴신경마비〉



뇌졸중으로 인한 얼굴마비는 대부분 증상이 몇 초에서 몇 분 사이에 갑자기 생기며, 발병 당일에 마비가 가장 심한 경향을 보인다. 또한 뇌졸중은 얼굴마비 외에 아래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.

- 한쪽 팔다리 마비
- 한쪽 팔다리 감각저하
- 언어장애 (말을 못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)
- 발음장애 (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)
- 이상행동
- 시야장애 (시야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 증상)
- 운동실조 (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걸을 때 비틀거리는 증상)
- 복시 (물체가 둘로 보이는 증상)
- 삼킴장애

진단 및 검사

우선 진찰을 통해 얼굴마비가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 구분합니다. '이마에 주름을 잡아보세요', '눈을 꼭 감아보세요', '눈을 깜박여보세요', '치아를 보여주세요' 등 간단한 요청으로 중추성과 말초성 얼굴마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팔다리 마비, 언어장애, 발음장애, 복시 등 다른 증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 진찰을 통해 중추성 얼굴마비가 의심되면 뇌 자기공명영상(Magnetic resonance imaging, MRI), 뇌 컴퓨터단층촬영(Computed Tomography, CT) 등의 영상검사가 필요합니다. 뇌 영상검사 결과에 따라 뇌 혈관검사, 뇌척수액검사 등 다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
치료

중추성 얼굴마비의 치료는 뇌경색, 뇌출혈, 다발성경화증 등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입니다.

자주하는 질문

Q. 중추성 얼굴마비는 완치할 수 있나요?

A.

중추성 얼굴마비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며, 질병의 중증도나 원인에 따라 회복에 차이가 있습니다.

참고문헌

1. 대한신경과학회 (2017). 신경학 3판. 서울:범문예듀케이션.

▣ 관련 건강정보

[얼굴마비](#) [얼굴마비\(말초성 마비\)](#)


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"**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**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☰ 목록

